

陶淵明 田園詩의 內容上 特色

金 周 淳*

<目 次>

I. 序 言	2. 眞 純
II. 陶淵明 田園詩의 概觀	3. 高 妙
III. 陶淵明 田園詩의 內容上 特色	IV. 結 語
1. 冲 淡	

I. 序 言

劉維崇은 그의 《陶淵明評傳》에서 “詩란 思想의 結精이자, 人格의 그림자이며, 行爲의 비침이다.”¹⁾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마다 가정환경과 교육수준, 친구와의 교제 및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므로 인해 인격·사상·행위 및 취미는 물론, 문학작품의 風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정치·사회 환경에 처한李白과杜甫의 시가 다르고, 王維와 孟浩然의 시가 다르며, 賈島와 孟郊의 시, 白居易와 元稹의 시도 각각 그 風格이 다를 수 있다.

本稿에서 특별히 중국 시인들 가운데 陶淵明을 대상으로 삼아 그의 田園詩 特色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玄學과 老莊思想이 만연하고, 艷麗와 彫琢의 文壇風潮가 성행한 魏·晉時代에 태어나 활동했는데도 當時의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

1) “詩是思想的結晶, 是人格的塑影, 是行爲的寫照”(劉維崇, 《陶淵明評傳》,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241쪽.)

玄學과 文壇風潮에 깊이 젖어 들지 아니 하고, 大自然의 懷抱 속에 情을 의탁하여 탁연히 홀로 우뚝 서서 그의 純粹하고 깨끗한 사상과 높고 초월한 인격, 그리고 純眞한 性情과 悠然하게 보내는 田園閑居의 생활 모두가 그의 작품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田園文學의 생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에 王熙元의 말을 덧붙인다면 “도연명은 儒·佛·道 三家思想을 두루 받았지만, 어느 한 사상에 전념하지 않았고, 三家思想의 精髓를 흡수하여 그것들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儒家의 엄정한 律己精神과 강한 倫理觀念이 있었지만, 오히려 繁文縟禮의 禮敎에 속박되지 않았고, 道家의 逍遙曠達한 인생태도가 있었지만, 조금도 魏·晉人物인 阮籍·嵇康·劉伶의 무리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佛敎의 無我解脫한 인생의 깨달음이 있었지만, 도리어 空虛에 들어가지 않고 철저히 인생을 은둔하였다. 그의 이 같은 독특한 사상과 생활 태도는 三家思想의 精髓를 融合하여 그의 높고 초월한 인생의 境界를 이루었다.”²⁾라고 말한 것같이 그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참 性情·참 生命’의 田園詩를 읊어 中國 田園詩歌文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인들로부터 田園詩의 開拓者로서 推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陶淵明 田園詩의 內容上 特色>을 探討하기에 앞서 먼저 연명의 田園詩에 대한 概觀을 살펴본 후, 그의 田園詩에 나타난 特色을 ‘冲淡’·‘眞純’·‘高妙’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2) “他歷受三家思想的影響，而不專於一家，且能吸收三家思想的精華，而摒棄他們的糟粕。譬如他有儒家嚴正的律己精神·濃厚的倫理觀念，但却絲毫不受繁文縟節的禮敎所束縛；他有道家逍遙曠達的人生態度，但却一點也沒有其他魏晉人物如阮籍·嵇康·劉伶輩那麼狂放傲誕；他有佛家無我·解脫的人生體悟，但卻未嘗遁入空門，徹底逃避人生。所以，他這獨特的思想與生活態度，是三家思想精華的融合，因而造成他高超的人生境界。”（王熙元，〈陶淵明的思想與人生觀〉，《慶祝婺源潘石禪先生七秩華誕特刊》）

II. 陶淵明 田園詩의 概觀

陶淵明(356~427)은 중국문학사에서 鍾嶸이 評한대로 “고금 은일 시인의 으뜸”³⁾이자, 후인들로부터 田園詩의 개척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 물론 연명 이전에 詩 三百篇이나 楚辭 및 樂府詩와 古體詩에도 山水·田園을 배경으로 한 田園詩가 있지만 이들 전원시는 오직 전원을 배경 삼아 꾸밈거나 곁들여 보일 정도의 시일 뿐, 연명의 田園詩처럼 작가가 직접 전원생활을 체험하면서 작가의 人生觀과 전원의 情趣를 融合시켜 진실하고 통일된 참된 영혼과 생명을 결합한 시라고는 볼 수 없다.

淵明의 田園詩 一百二十六首⁴⁾에는 四言詩가 아홉 수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五言詩이다. 그의 四言詩는 詩 三百篇의 영향을 받아 단조로우면서도 참신한 韻律과 리듬을 들을 수 있으나, 그의 인격과 사상을 표현한 독특한 田園詩의 風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의 <停雲>·<歸鳥>·<榮木>은 후인의 評價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命子>·<勸農> 이외는 詩 三百篇의 高趣를 느낄 뿐, 일반 독자에게 거의 어떤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한 편이다. 表現形式에 있어서 四言詩는 比興과 複沓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勸農>·<命子>·<歸鳥>·<酬丁柴桑>을 제외한 나머지 四言詩는 모두 詩 三百篇처럼 序가 있다.

淵明의 五言詩는 그의 四言詩와는 달리 楚辭와 樂府詩, 그리고 <古詩十九首>의 影響을 받아 生動感이 넘치고, 變化있는 表現을 들을 수 있다. 五言詩의 作品 중 가장 뛰어난 作品으로는 <歸園田居>·<飲酒>·<擬古>·<雜詩>·<挽歌詩> 등이고,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詩는 <和郭主簿>

3) “古今隱逸詩人之宗也”(鍾嶸 《詩品》)

4) “陶潛의 詩舊說有一百五十首左右 蓋後代俗本每將陶詩首卷의 四言詩一首分作數首, 如將命子詩分作十首, 歸鳥詩分作四首 這種分法是不大妥當的 現在依據丁福保陶詩箋注所收的, 計算它的篇目, 除去幾首是他人的作品摻入之外, 還有一百二十六首, 其中除九首是四言詩外, 其餘均爲五言”(方祖燾 《陶潛詩箋注校證論評》, 臺北, 蘭臺書局, 1977, 21쪽.)

·〈讀山海經其一〉·〈移居〉·〈飲酒其五〉·〈飲酒其十三〉 등이다. 〈懷古田舍〉·〈下潁田舍穫〉·〈歸園田居〉 등은 農村의 아름다운 情景을 잘 描寫했고, 〈詠貧士〉·〈怨詩楚調〉·〈有會而作〉·〈雜詩其八〉 등은 추위와 굶주림의 苦痛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을 읊은 詩들이다. 이상의 시들은 비록 楚辭·樂府詩·〈古詩十九首〉의 影響을 강하게 받았다고는 하나, 오히려 靑은 藍에서 나왔지만 藍보다 더 푸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堯明의 五言詩는 활기찬 생동감을 준다.

淵明 詩의 가장 重要한 主題는 田園生活에 대한 憧憬이다. 그는 몇 차례 벼슬생활 중 반복하여 읊고 한 마음으로 嚮往한 곳은 田園生活이니, 세장 안에 갇힌 새가 부자유스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도 당시 社會의 腐敗와 專制君主의 橫暴속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운 田園으로 돌아와 自然과 田園을 벗삼으려 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十餘年間의 몸부림친 끝에 마침내 마지막 官生活인 彭澤令을 80일만에 사직하면서 “내 어찌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촌뜨기 아이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가 있겠느냐!”⁵⁾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전원으로 돌아와 몸소 전원생활의 체험을 통해 源의 參生活 모습을 읊었으니, 그의 田園詩는 杜甫가 “江山은 廢하지 않고, 萬古가 흐른다.”⁶⁾라고 읊은 것처럼 中國文學史에서 값진 田園詩歌作品으로 영원한 田園文學의 한 領域을 형성하였다.

Ⅲ. 陶淵明 田園詩의 內容上 特色

1. 冲淡

이러나 ‘冲淡’이란 辭典式으로 풀이하면 ‘맑고 깨끗하다.’⁷⁾로 되어 있지

5) “我不能爲五斗米，折腰鄉里小人”(沈約 《宋書·隱逸傳》)

6) 杜甫는 그의 〈春望〉 시에서 “國破山河在”라 노래하였다.

7) 윤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2, 2544쪽.

만, 달리 언어의平易를 뜻하는 말로 內容이 虛空에 떠 있거나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오히려 더욱 豊富한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의 '平易'라는 점에서 연명의 시는 李白의 시와 그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李白의 유명한 <靜夜思> 시는 바로 그平易함을 대표하고 있다.

牀前明月光	침상 머리 달빛 보고	
疑是地上霜	땅에 내린 서리일까?	
舉頭望明月	머리 추기어 산마루 달을 바라보자	
低頭思故鄉	고향 생각에 스스로 고개 떨구네.	<靜夜思>

이 시는 화려한 꾸밈이나 修飾이 없고, 또 같고 다듬지 않은 詩語로 平淡하게 읊었는데도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影像을 느끼게 한다. 연명 시도 이와 같이 문득 보면 平易한 詩語로 쓰여져 평범하게 생각되나, 읽으면 읽을수록 시의 그윽함과 奧妙한 餘韻을 느낄 수 있다.

먼저 연명의 <歸園田居其一> 시를 감상해 보자

方宅十餘畝	십여 무의 반듯한 대지에	
草屋八九間	八·九간의 조촐한 초가집.	
榆柳蔭後檐	뒤뜰에는 느릅과 버들이 그늘지고	
桃李羅堂前	앞뜰에는 복숭아와 오얏꽃이 벌여있네.	
曖曖遠人村	저 멀리 마을의 정경은 어둑어둑 깊어질 새	
依依墟里煙	허전한 인가의 연기 길게 피어오르네.	
狗吠深巷中	골목 깊숙이 개 짖는 소리 들리고	
鷄鳴桑樹顛	닭은 뽕나무 가지에서 울음소리를 내네.	
戶庭無塵雜	뜰 안에는 잡스런 먼지 일지 않고	
虛室有餘閒	텅빈 방도 한가롭기만 하도다.	<歸園田居其一>

이 시는 農村을 배경 삼아 平易한 언어로 그 情景을 묘사하여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며 전원의 情景을 감상하는 느낌을 준다. 明代의 黃文

煥은 이 시를 평하여 “땅이 몇 두둑, 방이 몇 칸, 나무가 몇 그루, 꽃이 몇 종류, 먼 마을과 가까운 연기의 어떤 색채, 닭이 울고, 개가 짖어대는 어떤 장소, 잔 부스러기 같은 자상한 숫자는 언어가 속되어도 뜻은 더욱優雅하며, 흡사 보기에는 바쁜 것 같으면서도 한가로우니, 하나하나 흔쾌하고, 아주 보편적인 情景이라 각기 정취의 맛이 나게 한다.”⁸⁾라고 評하였다. 연이어지는 시로

野外罕人事,	시골이라 번거로운 인간사 없고	
窮巷寡輪鞅	빈촌이라 세도가의 마차 안 오네.	
白日掩荆扉,	대낮에도 사립문 굳게 닫은 내 집	
虛室絕塵想	말쭙한 방에 때 낀 생각 없이라.	
時復墟曲中,	이따금 정허한 마을로 발길 옮겨	
披草共來往.	풀을 헤치며 사람들과 내왕하네.	
相見無雜言,	서로 만나도 잡스런 말 없고	
但道桑麻長	오직 농사일 잘되는가 물을 뿐.	
桑麻日已長	뽕과 삼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我土日已廣	나의 농토 날로 개간되어 넓어지네.	
常恐霜霰至,	다만 서리나 싸라기눈 내리어	
零落同草莽.	잡초모양 시들까 두렵노라.	<歸園田居其二>

이 시는 인간사회의 잡스런 생각이나 번거로운 일들은 모두 得失에 영킨 일들이라서 이런 때에는 俗世의 일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오직 전원에서 싱싱한 풀 냄새를 맡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읊었다. 문체가 간결하고 거의 긴 말이 없는 표현으로 연명이 평상시 전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平易한 언어로 描寫하여 ‘冲淡’을 느끼게 한다. 역시 이어지는 시로

8) “地幾畝，屋幾間，樹幾株，花幾種，遠村近煙何色？雞鳴狗吠何處？峭細詳數，語俗而意愈雅，恰見共忙就閑，一一欣快，極平常情景，各生趣味。”(黃文煥，《陶詩析義》)

種豆南山下,	남산 기슭에 콩을 심었으나	
草盛豆苗稀.	풀만 무성하고 싹은 나지 않는다.	
晨興理荒穢	새벽에 일어나 거친 밭을 손질하고	
帶月荷鋤歸.	달과 더불어 호미 메고 돌아온다.	
道狹草木長	길 좁고 풀 나무 우거져	
夕露霑我衣	밤이슬 옷깃을 적시네.	
衣沾不足惜,	옷 젖는 것 아깝지 않고	
但使願無違	오직 농사 잘 되기만 바랄 뿐.	<歸園田居其三>

연명은 이 시의 앞에서 뿔과 삼을 심고, 오직 잘 자라기를 바랐으나, 여기서는 콩을 심었는데 싹이 드물게 난 것에 대해 수확에 혹시나 어긋남이 없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새벽에 호미 메고 밭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자 달을 빗삼아 귀가하며 농사일만 잘 되면 밤이슬에 옷 젖는 것 개의치 않겠다는 농부의 소박한 참모습도 보여 준다. 이 시에서 田園의 평화로운 情景와 작가의 意趣가 融合되어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는 담박한 시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연명이 그의 마지막 벼슬인 彭澤丞을 사직하고 田園으로 돌아와 三年이 되었을 때 집에 불이 나자 처음 居住地⁹⁾에서 南村으로 이사한 후에 지은 시를 감상하고자 한다. 집에 화재가 있었다는 것은 위의 시와 같

9) 연명이 귀거래한 후 처음 거주지에 대하여는 異說이 紛紛하다. 義熙元年 乙巳歲에 지은 <還舊居> 시에 의하면 “疇昔家上”이라 했고, 義熙四年 戊甲年 화재로 인해 南村으로 이사한 후에 지은 <移居> 시에서는 “昔欲居南村”이라 했으며, 義熙七年에 지은 <與殷晉安別> 시에서는 “去歲家南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연명은 7년 사이에 거주지를 세 번이나 옮긴 셈이 되니 의혹이 아니 될 수 없다. 이전의 분분한 학설을 정리하여 귀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처음 거주지는 宜豐(新昌)이었으나, 나중에 柴桑으로 옮겼다는 설 《圖經》
- ② 처음 거주지는 上京이었는데 후에 栗里(南村)로 옮겼다는 설은 《江州志》와 梁啓超의 주장으로 귀납할 수 있으나, 今人 方祖燾은 처음에 上京에 거했다가 화재로 인해 柴桑의 南村으로 옮겼다가 후에 다시 上京으로 돌아와 거주했다는 설을 주장함.
- ③ 옛 거주지는 柴桑이었는데, 후에 南里인 南村(栗里)으로 옮김.

은 해에 지은 <戊申歲六月中遇火>¹⁰⁾ 라는 시 제목에서 알 수 있다.

昔慾居南村,	그전에 남촌에서 살려고 하였던 것은
非爲卜其宅	짐자릴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었다.
聞多素心人,	소박한 마음 지닌 사람이 많다고 들었기에
樂與數晨夕.	조석으로 자주 만나 즐겁게 지내고 싶어하였다.
懷此頗有年,	이 일을 생각한 지 꽤 여러 해 지났는데
今日從茲役	오늘에야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弊廬何必廣,	허술한 막집 넓어서 무엇하리
取足弊牀席.	침상과 앉을 자리 가리우면 족하다.
隣曲時時來,	이웃이 사시로 찾아와 주어
抗言談在昔.	주고받는 대화는 옛날을 말하는 것.
奇文共欣賞,	기묘한 글은 함께 기뻐 감상하고
疑義相與析.	의문나는 글뜻은 서로 같이 분석해 본다. <移居其一>

이 시에서 언급된 南村은 실제로는 栗里라고 하고, 또는 柴桑 남쪽이라고도 한다.¹¹⁾ 여기서 연명은 그가 이사한 원인과 이사한 후의 정취를 읊으면서 그가 남촌으로 집을 옮긴 것은 결코 吉祥이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직 南村에 사는 사람들이 순박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하기에 그들과 함께 참性情을 나누고 싶은 오랫동안의 바람을 마침내 화제로 인해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연명은 그의 이상향을 신선이 사는 상상의 세계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지 흙냄새가 풍기는 평범한 인간사회에서 찾고자 하였기에 그의 시는 우리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고 감동을 일으킨다.

10) “草廬寄窮巷, 甘以辭華軒. 正夏長風急, 林室頓燒燔. 一宅無遺宇, 舫舟蔭門前. 迢迢新秋夕, 亭亭月將圓. 果菜始復生, 驚鳥尚未還. 中宵踰遙念, 一盼周九天. 總髮抱孤介, 奄出四十年. 形迹憑化往, 靈府長獨閑. 貞剛自有質, 玉石乃非堅. 仰想東戶時, 餘糧宿中田. 鼓腹無所思, 朝起暮歸眠. 既已不遇茲, 且遂灌我園”(陶淵明, <戊申歲六月中遇火一首>)

11) “南村亦曰南里果在何處? 李公煥曰…卽栗里 何孟春曰…柴桑之南村”(古直《古譜》)

春秋多佳日,	봄가을엔 좋은 날 많아
登高賦新詩.	높은 데 올라가서 새 시를 짓는다.
過門更相呼,	문 앞을 지날 적에 번갈아 불러들여
有酒斟酌之	술이 있으면 따라 마신다.
農務各自歸,	농사일에 각자가 돌아갔다
閑暇輒相思	한가롭게 틈 생기면 곧 생각한다.
相思則披衣,	생각나면 옷 걸치고 나서서
言笑無厭時.	말하고 웃고 물릴 때 없다.
此理將不勝,	이러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랴
無爲忽去茲	이곳을 급히 떠나는 일 하지 말아야 한다.
衣食當須紀	입고 먹는 것 마땅히 손써야 하나
力耕不吾欺	힘써 농사지으면 나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 <移居其二>

이 시는 연명이 農閑期에 높은 산에 올라가 전원생활에 安住하고자 하는 懷抱를 읊었다. 農耕期로 바쁠 때는 농사일에 전념하다가 한가로우면 이웃을 방문해 서로 술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人情味도 느낄 수 있다. 전원생활에서 특별한 素材없이 平淡하게 읊었는데도 마치 옛친구를 만나 應答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훈훈한 감을 준다.

이상의 시들을 감상해 보면, 연명은 “百字로써 駢麗를 對偶하고, 한 구절이라도 신기한 것을 높이 친다.”¹²⁾라는 形式과 技巧를 중시하던 당시의 文壇風潮와는 달리 平易하고 자연스런 文彩로 그의 체험을 통한 농촌의 情景를 읊었기에 우리는 그의 시에서 그의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의 품모와 깊은 愛情을 느낄 수 있다.

2. 眞純

人間이 社會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眞實한 행동과 純粹의 交感

12) “儷采百字之偶, 爭價一句之奇.”(胡雲翼 著, 張基權 譯, 《中國文學史》,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4, 180쪽.)

일 것이다. 이러한 交感이 있을 경우 서로간 신뢰감을 느끼게 되어 깊은 우정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 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虛構性이 排除된 실지 일어난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정신에 의해 얼마나 진실하고 순박한 도덕적 삶을 표현했느냐에 달려있다. 연명은 직접 전원(田園)에 들어가 자기 체험을 통한 전원생활의 삶을 진실 되고 순박하게 시로 읊었기에 蘇東坡가 연명의 인품을誦하길 “연명은 벼슬하고 싶으면 나가서 했고, 그렇다고 꺼리는 일은 없었다. 또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했고, 그렇다고 高潔하다고 자처하지도 않았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들겨서 밥을 찾기도 했고, 살림이 넉넉하면 닭이나 술을 빚어 놓고 손님을 청해 대접도 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의 태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無爲自然에 歸한 그의 참삶이라 하겠다.”¹³⁾라고 하였다.

아래에서 연명의 田園詩에 나타난 ‘眞純’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悠悠上古,	아득히 먼 복희 신농시대에
厥初生民.	그때에 태어난 백성들은.
傲然自足,	즐거이 제 힘으로 농사짓고 자족하며
抱樸含眞.	순박한 풍속과 순진한 천성을 가졌노라. <勸農其一> 節錄

이 시에서 연명은 중국 옛 전설시대의 帝王으로 불리던 伏羲氏는 백성들에게 漁獵을 가르치고, 神農氏는 농사일을 가르쳤는데, 그때의 백성들은 농사일로 자급자족하여 오늘의 名利를 중시하는 속세 사람들과는 달리 眞實되고 淳朴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강조한 ‘眞純’은 연명의 최고 숭고한 理想이자, 그의 生活實體임을 알게 해주며, 그는 老莊思想에 의한 현실 도피적 隱逸시인이 아니라, 태고적 태평성세를 누렸다던 伏羲氏나 堯舜의 <擊壤歌>¹⁴⁾같은 儒家적인 삶을 찾은 詩人임을 알게 한다.

13) “淵明欲仕則仕, 不以求之爲嫌; 欲隱則隱, 不以去之爲高. 飢則叩門而乞食, 飽則雞黍以延客. 古今賢之, 貴其眞也.”(蘇東坡 《津逮秘書》本 卷一)

K C I

14)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于我何有哉”(王充 《論衡·感虛篇》)

運生會歸盡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어 돌아가니
終古謂之然	그것은 영원한 진리라 하노라.
世間有松喬	적송자와 왕자교가 신선되었다 전하나
於今定何問	지금에는 정작 어디에 있는 건가.
故老贈余酒	다정한 노인장이 내게 술을 권하며
乃言飲得仙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 하기에.
試酌百情遠	한 잔 드니 온갖 걱정 사라지고
重觴忽忘天	두 잔 술에 홀연 하늘도 잊었노라.
天豈去此哉	하늘이야 어찌 이곳을 떠나갔으랴는.
任真無所先	친진한 대로 맡겨 버려서 앞설 게 없는 것이다.

〈連兩獨飲〉 節錄

이 시는 연명이 晩年에 들어와 쓴 作品으로 人生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라서 허무함을 느끼며, 俗世 사람들이 사소한 利得이나 名譽, 그리고 權力을 얻고자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일이 아주 부질 없는 일이라 하였다. 神仙이 되어 不老長生한다는 赤松子나 王子喬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연명이 老莊思想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老莊의 神仙思想을 부인한 특이한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人生無常의 근심을 풀어주는 것은 오직 술에 취하여 만사를 잊고 天地自然과 渾然히 일체가 된 境地, 즉 '참'에 내 몸을 맡긴 境地만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자연에 맡기고 옳고 그름을 잊은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오직 天真만을 있게 해야 한다."¹⁵⁾라는 莊子의 생각과 相通이 된다.

悵恨獨策還	서글퍼 혼자서 지팡이 짚고 돌아오는데
崎嶇歷榛曲	오르락내리락 잡목 우거진 골짜기 지나왔다.
山澗清且淺	산골짜 물 맑고 또 얕아
可以濯吾足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다.
澆我新熟酒	나의 갓 익은 술 거르고서

15) “任自然而忘是非者，其體中，獨任天真而已”(莊周 《莊子·齊物論》)

隻鷄招近局	한 마리 닭으로 이웃을 불러왔다.	
日入室中闇	해 빠지고 방안 어두워져서	
荊薪代明燭	싸리나무로 밝은 촛불 대신하였다.	
歡來苦夕短	기쁨 솟아올라서 저녁 짧아 괴롭더니	
已復至天旭	어느새 또 하늘이 환해졌다.	<歸園田居其五>

屈原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겠다”¹⁶⁾라고 했지만, 연명의 시에서는 굴원과는 달리 홀로 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도중 산골짜기 흐르는 맑은 물가에 도착하여 맑은 물에 발을 씻겠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연명의 굳은 의지이기도 하다. 한편 연명의 시에서는 홀로 앉아 외롭게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웃을 불러 닭을 잡아 함께 마시는 훈훈한 인간의 정도 느낄 수 있어서 그의 眞純한 삶을 알게 한다.

目倦川塗異	눈은 개울길 달라지는 데 지치고	
心念山澤居	마음은 산천 속에 사는 일 생각한다.	
望雲慙高鳥	구름 바라보면 높이 나는 새에 창피하고	
臨水愧遊魚	물에 노는 고기 부끄러워라.	
眞想初在襟	본시 나의 뜻이 참된 삶에 있으니	
誰謂刑迹拘	몸이 얽매인다고 누가 말하라!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節錄

연명은 二十九歲에 잠시 江州의 祭酒로 나갔다가, 곧 田園으로 돌아와 밭갈이를 하고 지냈다. 그러다가 三十五歲에 다시 鎮軍參軍인 劉牢之의 幕僚가 되었다. 그가 다시 벼슬길을 찾은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는 본성에 어긋난 벼슬살이에 얽매어 있음을 한탄하면서 위와 같은 시를 지어 참된 삶을 살겠다고 외쳤다.

16)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屈原 <漁父辭>)

投冠旋舊墟, 감투 내어 던지고 살던 곳에 돌아가서
不爲好爵榮, 좋은 벼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養眞衡茅下, 허술한 초가집 밑에서 참된 본성 기르고
庶以善自名, 착한 일로써 스스로 이름을 내리라.

〈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中〉 節錄

연명은 隆安四年 五月에 劉牢之의 參軍을 辭職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해에는 劉牢之와 대립되는 桓玄의 밑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가 벼슬길을 찾은 것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¹⁷⁾이라고 그의 〈歸去來辭序〉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의 벼슬자리는 어제는 劉의 밑에서 오늘은 桓의 밑에서라는 식으로 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였다. 이 시에서 本性和 맞지 않은 벼슬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참삶을 살고자 하는 연명의 진실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此中有眞意, 이 가운데 참 맛이 있으니
欲辨已忘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라. 〈飲酒其五〉 節錄

이 시구에서 ‘참’이란 연명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알게 해준다. 여기서 연명이 언급한 ‘眞意’는 莊子가 “진실은 하늘에서 받은 순수한 마음이다. 자연을 人爲로 하여 고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연을 본받고 진실을 귀히 여길망정 세속적 관례에는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¹⁸⁾라고 한 말과 일치한다.

17) “嘗從人事, 皆口腹自役”(陶淵明, 〈歸去來辭序〉)

18) “眞者, 所以受于天也, 自然不可易也, 故聖人法天貴眞, 不拘于俗.”(莊周 《莊子·漁父》)

羲農去我久, 복희 신농이 떠나간 지 오래되어서
 舉世少復眞, 은 세상에 순진함 되찾는 이가 적어져 버렸구나.
 <飲酒其二十> 節錄

오늘의 世上은 伏羲와 神農 같은 聖王의 시대, 즉 太平時代는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옛날이 되어서 素朴하고 純眞한 참삶을 되찾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였다. 사실 연명이 생존했던 東晉末葉과 劉宋初葉까지는 社會動搖가 극심하고 謀士의 活躍으로 ‘智巧와 ‘大僞가 가득 차 있는 시기라서 伏羲氏와 神農氏가 살았던 淳朴한 世界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연명은 참생활을 찾고자 官吏생활을 청산하고 田園으로 돌아온 것이다.

乃瞻衡宇, 마침내 저 멀리 나의 집 대문과 지붕이 보이자
 載欣載奔, 나는 기뻐서 뛰었다.
 僮僕歡迎, 머슴아이가 길에서 나와 나를 맞고
 稚子候門, 어린 자식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歸去來辭> 節錄

<歸去來辭>는 歐陽修가 “晉에는 문장이 없고, 오직 도연명의 <귀거래사> 한 편이 있을 뿐이다.”¹⁹⁾ 라고 極讚한 것처럼 연명의 不朽 작품이다. 이 작품은 不正과 腐敗, 爭鬪와 非理로 얼룩진 晉·宋年間에 연명 자신의 田園에 대한 憧憬과 자기 본연의 모습을 실현에 옮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연명이 천진한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情緒를 잘 露出한 위 <歸去來辭> 節錄에서 情景이 眞實되고 歡喜의 情으로 가득 차 넘쳐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명의 시에는 ‘眞純’을 표현한 작품이 여러 편 있다. <祭從弟敬遠>과 <祭程氏妹> 및 <悲從弟仲德>의 시들은 깊은 血肉의 情을 眞摯하게 묘사했으며, 字字句句에서 피눈물나는 통절함을 느끼게 한다. 그 밖의 <與殷晉安別>·<答龐參軍>·<贈羊長史> 등의 작품에서는 ‘眞’을 바

19) “晉無文章, 惟陶淵明歸去來兮辭一篇而已”(歐陽修,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탕으로 한 純粹한 友情을 읊었다.

이상의 연명 시를 살펴볼 때 그가 읊은 ‘眞純은 內容上으로는 ‘智巧나 ‘大僞’와는 아주 반대인 ‘淳과 ‘樸의 개념을 意味하고, 形態上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강요를 받지 않는 安靜狀態를 말한다.

3. 高妙

宋代의 湯漢이 연명의 시에 대해 “陶公의 시는 정밀하고 깊고 高妙하며, 헤아리기가 더욱 멀어 가히 소홀히 볼 수 없다.”²⁰⁾라고 評한 것처럼 연명 시를 읽어보면 高妙함을 느끼게 하는 시들이 있다.

아래에서 高妙함을 주는 몇 편의 연명 시를 감상하고자 한다.

結廬在人境	사람 사는 고장에 막집을 엮었으나
而無車馬喧	수레 시끄럽게 찾는 자 없노라.
問君何能爾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니
心遠地自偏	마음이 머니 땅 스스로 외지구나.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 따드니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네.
山氣日夕佳	가을 산 기운 저녁에 더욱 좋고
飛鳥相與還	나는 새 짝지어 집으로 돌아오니.
此中有眞意	이러한 경지가 바로 참맛이러니
欲辨已忘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으라.

<飲酒其五>

이 시에서는 無限하고 悠遠한 境地와 ‘廬舍’·‘菊花’·‘竹籬’·‘南山’·‘飛鳥’등이 잘 어울리어 아름다운 情景을 한 폭의 畫幅에 담아 놓은 것처럼 고요하고 편안하면서도 高妙함을 느끼게 한다. 바로 이러한 境地를 연명은 心像과 事物이 서로 얽혀져서 말로는 도저히 形言할 수 없는 境界, 오

20) “陶公詩, 精深高妙, 測之愈遠, 不可漫觀也”(陶潛 撰·陶澍 注 《靖節先生集·自序》)

직 뜻을 알아도 말로는 전할 수 없는 忘我의 境地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시의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 따드니, 유연히 남산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네.)”라는 시구에 대하여 宋代 蘇東坡는 “국화를 따 들음으로 인해 산이 저절로 눈에 들어와 情景와 뜻이 모여지게 하였으니, 이 시구는 가장 오묘함을 느끼게 해준다. 요즈음 俗本에는 모두 ‘남산을 바라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구의 절묘한 풍취를 전부 삭막하게 만들었다.”²¹⁾라 하였고,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사람 사는 고장에 막집을 엮었으나, 수레나 말 타고 시끄럽게 찾아오는 자 없노라.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묻기도 하지만, 마음 두는 곳이 원대하니, 몸담은 땅도 스스로 외지게 되노라!)”에 대하여 清代 王士禛은 “章의 뜻을 통하는 데는 ‘心遠’ 두 글자에 있으니 참뜻이 여기에 있고, 말을 잊게 함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高潔한 선비는 마음이 확 트이고 뜻이 높고 멀어서 모든 대상물이 가히 막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속세의 물건이 함부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고요한 경지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움직이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도 또한 고요해지는 것이다. 경지가 달라도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한 것은 마음을 속세와 멀리해서 한가한 데에 두기 때문이다. 마음이 속세의 물건에 막히지 않으면 사람들 틈에서 고요함을 근심하지 않고, 車馬를 만나도 그 시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²²⁾라고 하였다.

秋菊有佳色, 가을 국화가 아름다운 색깔 지녀서
裛露掇其英 이슬에 젖으면서 그 꽃을 딴다.

21)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因採菊而見山 境與意會 此句最有妙處 近歲俗本皆作‘望南山’, 則此一篇神氣都索然矣. 古人用意深微, 而俗士率然妄以意改 此最可疾 近見新開韓·柳集多所刊定, 失真者多矣”(蘇東坡 <題淵明飲酒詩後>)

22) “通章意在‘心遠’二字, 眞意在此 從古高人只是心無凝滯空洞無涯 故所見高遠 非一切名象之可障隔, 又豈俗物之可妄干. 有時而堂靖境, 靖也, 卽動境亦靖 境有異而心無異者, 遠故也, 心不滯物 在人境不虞其喧 逢車馬不覺其喧”(王士禛 <古學千金譜>)

汎此忘憂物,	이 근심 잊게 하는 물건에 띄워
遠我遺世情.	나의 세상 버린 정을 더 멀리 한다.
一觴雖獨進	한 잔을 비록 혼자서 들게 되나
盃盡壺自傾	잔 비우면 술병 절로 기울다.
日入羣動息	해도 지고 만물이 쉼 무렵에
歸鳥趨林鳴	숲을 향해 울며 돌아오는 새.
嘯傲東軒下,	동쪽 창 아래에서 후련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리니
聊復得此生	새삼 참삶을 되찾은 듯하여라. <飲酒其七>

이 시는 연명이 좋아하는 술과 국화를 조화시켜 그 情景을 잘 들어내었다. 연명은 이슬 머금은 깨끗한 국화꽃을 따서 술에 띄우고 홀로 잔을 기울여 본다. 잔이 비면 다시 자연스럽게 술병이 기울어져 술이 다시 잔에 채워진다. 이렇게 하는 사이 해가 지자 숲속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몸가짐으로 있노라면 진실한 삶의 기쁨이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오른다. 여기서 완전히 자연과 융화하여 아무런 바람이나 욕구도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명의 참모습을 보게 한다.

顏生稱爲仁,	안희는 어질다고 일컬어졌고
榮公言有道	영계기는 도 지녔다고 말하지마는.
屢空不獲年,	끼니 자주 거르고 오래 살지 못했고
長飢至於老	내내 굶주리면서 노경에 이르렀다.
雖留身後名,	죽은 후의 명성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一生亦枯槁	살아 생전엔 역시 비쩍 말라 지녔다.
死去何所知	죽어 버리면 무엇을 알라
稱心固爲好.	마음에 맞게 사는 게 본래 좋은 것이다.
客養千金軀	천금이나 보배로 육신을 가꾸어도
臨化消其寶	죽으면 함께 사라져 없어지느니라.
裸葬何必惡	벌거숭이로 장사지낸들 싫어할 것 있겠는가
人當解意表	사람들은 마땅히 일반 생각 밖의 뜻을 알아야 한다.

<飲酒其十一>

이 시는 古代 어진 자로 알려진 顏回와 榮啓期가 현실생활에서는 실패했지만, 죽어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명성도 인간의 作爲에 불과 하기에 연명은 그것마저 초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客養千金軀, 臨化消其寶(친금이나 보배로 육신을 가꾸어도 죽으면 함께 사라져 없어지느니라.)”는 생전에 육신을 몹시 아껴 금은 보배로 몸을 장식하고 친금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 나그네 신세인 육신을 가꾸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승으로 죽어 없어지는 순간에 그 보배나 육신도 허무하게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다. 梁啓超가 “이 두 詩句는 칠천 권의 대장경과 맞먹는 명언”²³⁾이라고 말한 것은 연명 시의 高妙함과 道를 터득한 경지를 評한 것이다.

開歲倏五日,	새해에 들어서서 어느새 닷새가 지났으니
吾生行歸休,	내 인생도 머지않아 끝장이 날 것이다.
念之動中懷,	이 일 생각하니 가슴 속 울렁거리
及辰爲茲遊,	때에 맞춰 이 놀이를 하는 거라.
氣和天惟澄,	공기는 온화하고 하늘 또한 맑은 데
班坐依遠流,	긴 물줄기 따라 즐지어서 앉았다.
弱湍馳文鮪,	느린 여울목엔 아롱진 방어 치닫고
閒谷矯鳴鸞,	조용한 골짜기에는 우는 갈매기 뒤집으며 난다.
迴澤散游目,	먼 물 쪽으로 눈을 돌려서
緬然睇曾丘,	아득히 증구를 바라본다.
雖微九重秀,	아홉 층의 빼어남 없기는 하나
顧瞻無匹儔,	둘러보아도 그에 견줄 짝이 없다.
提壺接賓侶,	술병을 들고 같이 온 친구를 상대하여
引滿更獻酬,	잔에 가득 술을 따라 번갈아 주고받는다.
未知從今去,	알 수 없거니와 지금 이후에야
當復如此不,	또 이같이 놀게 되겠나.
中觴縱遙情,	잔 비우는 도중 초탈한 마음 멋대로 풀어놓고

23) “這兩句可以抵七千卷的大藏經了”(梁啓超, 《陶淵明》, 臺北, 中華書局, 1972, 19쪽.)

칭송한 값진 말이라 할 수 있다.

소동과 역시 “도연명이 이르기를 ‘平疇交遠風, 良苗亦懷新(평평한 밭에 먼 바람 오가고, 좋은 싹 또한 새 기운 품고 있다)’²⁸⁾이라고 하였는데, 예전에 손수 밭을 갈고 김을 매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시구를 쓸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짓지 않았기에 이 시구의 오묘함을 알 수 없다.”²⁹⁾라고 평한 것은 연명은 실지 농사의 체험을 통해 생활에서 발견한 도를 시로 표현하였기에 그 오묘함이 지극하다고 한 것이다.

연명은 어린 시절에 六經 읽기를 좋아하고,³⁰⁾ 本性은 자연을 愛好³¹⁾하였으며, 老莊의 학설이 성행한 시대에 태어나 隱逸한 후에는 廬山에 있는 東林寺의 慧遠法師와 교유왕래³²⁾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儒家의 安貧樂道와 순결한 節操로 도를 지키는 선비정신이 있었고, 老莊의 清靜 達觀한 태도와 佛家의 無慾空虛의 사상이 그의 몸에 배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儒·佛·道 三家思想을 흡수하여 儒家로 精華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形贈影>·<影答形>·<神釋> 시에서는 이러한 그의 사상과 인생관의 眞面目을 잘 엿보게 한다.

天地長不沒	하늘과 땅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山川無改時	산과 개울은 변할 때가 없다.
草木得常理	초목은 변하지 않는 이치 얻어서
霜露榮悴之	서리와 이슬 따라 무성하고 시들고 한다.
謂人最靈智	사람은 가장 영특하고 지혜롭다고 말은 하지만
獨復不如茲	홀로 그러하질 못하다.

27) “淵明不爲詩, 寫其胸中之妙耳.”(陳師道, 《後山集》卷八, 《四部備要》本)

28) 陶淵明, <癸卯歲始春懷古田舍其二>

29) “陶靖節云: ‘平疇交遠風, 良苗亦懷新’非古之耦耕植杖者 不能道此語 非余之世農, 亦不能識此語之妙也.”(蘇植, <題淵明詩>, 《蘇軾詩集》)

30) “少年罕人事, 游好在六經”(陶淵明, <飲酒其十六>)

31)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陶淵明, <歸園田居其一>)

32) “遠師結白蓮社, 以書招淵明. 陶曰: ‘弟子嗜酒 若許飲 卽往矣. 遠許之, 遂造焉 因勉令入社. 陶贊眉而去.’<廬阜雜記>

適見在世中,	세상에 살고 있는 것 막 보았나 하면	
奄去靡歸期	급작스레 가버리고 돌아올 기약이 없다.	
奚覺無一人	어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며	
親識豈相思	친척이나 아는 이인들 어찌 생각을 하라.	
但餘平生物	다만 남아있는 생전에 쓰던 물건들	
舉目情淒洟	눈을 들면 마음이 비참해진다.	
我無騰化術	나 신선되어 올라가는 도술 없으니	
必爾不復疑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것 정녕 의심하지 않는다.	
願君取吾言	원컨대 그대는 내 말을 받아들여	
得酒莫苟辭	술이 생기면 구차하게 사양치 말게.	<形贈影>

이 시에서 形은 육신을 말하고, 影은 그림자 또는 헛된 이름이나 명예 같은 것을 비유하였다. 초목은 서리에 시들었다가 이슬을 받아 다시 소생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人生의 無常함을 읊었다. 연명은 인생무상에서 오는 시름을 잊고자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술로써 시름을 잊고자 하는 연명의 시구는 <連雨獨飲>의 “試酌百情遠 우선 한 잔 들어보니 온갖 생각 멀리 가고”, <乙酉歲九月九日>의 “何以稱我情 濁酒且自陶(무엇으로 내 마음 달랠 것인가, 탁주로 잠시 혼자서 즐거워지자.)”, <飲酒其七>의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이 근심 잊게 하는 물건을 띄워 나의 세상 버린 정을 더 멀리 한다.)”, <止酒>의 “止酒情無喜(술을 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등에서 보인다. 연명의 시에서 언급된 술은 마취제의 역할을 하여 우리는 그의 음주를 읊은 시에서 高妙함을 느낄 수 있다. 한편 “我無騰化術(나 신선되어 올라가는 도술 없으니)” 시구에서는 연명이 당시 성행한 老莊思想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죽은 후 神仙이 된다는 사상은 부정함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도 연명은 道家의 신선사상에 의해 隱遁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儒家의 생활질서 속에서 은둔을 찾으려 했던 시인임을 느끼게 한다.

存生不可言,	삶을 존속시키는 일 장담할 수 없고	
衛生每苦拙	삶을 지킴 언제나 졸렬하기 그지없다.	
誠願遊崑華	정녕 곤륜산과 화산에 노닐고 싶기는 하나	
邈然茲道絕	그 길은 아득하니 끊어지고 말았다.	
與子相遇來	그대와 만난 이래로	
未嘗異悲悅	슬픔과 기쁨 달리한 적 없다.	
憩蔭若暫乖	그늘에서 쉬면 잠시 떨어지게 되지만	
止日終不別	해나는 데 머물면 끝내 헤어지지 않는다.	
此同既難常	이렇게 같이 있음 꾸준하기 어려운데	
黯爾俱時滅	깜깜히 때와 함께 소멸하여 버린다.	
身沒名亦盡	몸뚱이 없어지면 이름 또한 다해 버려	
念之五情熱	이 일 생각하면 오정이 달아온다.	
立善有遺愛	선을 행하면 사후에 명성 남으니	
胡可不自竭	어찌 스스로 힘 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酒云能消憂	술은 근심을 없앨 수 있다지만	
方此語不劣	이에 비하면 어찌 졸렬하지 않겠는가.	<影答形>

이 시는 그림자를 형상화하여 몸에게 한 말이다. 몸과 그림자는 다 같이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몸이 죽으면 그림자도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不老長生’을 원하지만 그것은 한갓 헛된 바람이라 하였고, 오직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후세에 길이 남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술은 시름을 잊게 한다지만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졸렬하다고 하였다. 연명이 말한 立善은 《荀子》의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려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린다.”³³⁾와 《尙書》의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³⁴⁾라는 말과 相通한다.

大鈞無私力, 대자연의 조화에는 사사로운 힘이란 없고

33)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以禍.”(荀子, 《荀子·宥坐》)

34) “天道福善, 禍淫.”《尙書·湯誥》

萬物自森著, 온갖 물건은 절로 성하고 드러난다.
 人爲三才中, 사람이 三才 중에 끼이는 것은
 豈不以我故, 어찌 나 때문이 아니겠는가.
 與君雖異物, 그대들과는 다른 물건이기는 하나
 生而相依附, 나면서부터 서로 의지해 왔다.
 結託既喜同, 맺어지고 의탁하고 하는 것 같아함 이미 기쁘는데
 安得不相語, 어찌 서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나.
 三皇大聖人, 삼황은 위대한 성인이지만
 今復在何處, 지금은 그런데 어디 있나?
 彭祖愛永年, 팽조는 장수를 즐겼지마는
 欲留不得住, 머물러 있으려 해도 벗어 있질 못했다.
 老少同一死, 늙은이고 젊은이고 다같이 한 번은 죽는 것이니
 賢愚無復數, 잘나건 못나건 다를 게 없다.
 日醉或能忘, 매일 취하면 혹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將非促齡具, 어찌 목숨 단축시키는 음료가 아니겠는가.
 立善常所欲, 선을 행함은 언제나 기쁜 일이나
 誰當爲汝譽, 누가 나서서 너를 위해 칭송하여 줄 것인가.
 甚念傷吾生, 심하게 염려하면 우리 삶을 해치게 되니
 正宜委運去, 마땅히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거라.
 縱浪大化中, 큰 변화 속 물결치는 대로
 不喜亦不懼, 기뻐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應盡便須盡, 다해야 할 것이면 다해 버려야지
 無復獨多慮, 더 이상 유별나게 근심 많이 하지들 말게.

<神釋>

이 시는 精神 또는 心靈이 육신과 그림자에게 말한 것이다. 伏羲氏·神農氏·皇帝氏 세 분은 더없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살아 있지 않고, 8백년 살았다던 彭祖도 不老不死를 원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다. 술에 취해 잠시 人生無常에서 오는 시름을 잊을 수도 있지만 술은 몸에 해로움을 주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제나 남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칭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현실적 현상세계에 집착하여 안달하지 말고 영원하고 끝없는 대자연의 조화에 歸

一하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연명의 시 가운데에서 매우 哲理的인 뜻을 담은 시이자, 정신적 갈등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유교와 도교 및 불교에서 인생문제를 헤탈해 보고자 하였지만, 연명은 어디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었다. 결국 연명은 죽음이란 宿命 앞에서 확고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高妙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

V. 結 語

도연명의 문학성취는 鍾嶸이 이른 바 “고금 은일 시인의 으뜸”³⁵⁾이라 했고, 後世人들은 田園詩의 개척자라고 하였으니, 그가 후대 시가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 고찰한 <陶淵明 田園詩의 內容上 特色> 을 장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淵明 詩의 가장 重要한 主題는 田園生活에 대한 憧憬으로 그가 몇 차례 벼슬생활 중에 반복하여 읊고 한 마음으로 嚮往한 곳은 田園生活이었다. 세상 안에 갇힌 새가 부자유스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도 당시 社會의 腐敗와 專制君主의 橫暴속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운 田園에서 自然을 벗삼아 참삶을 살고자 했다. 마침내 그는 致仕歸田을 결행하여 田園으로 돌아와 몸소 논과 밭을 耕作하며 清新自然을 으뜸 삼아 ‘참性情’·‘참生命’의 田園生活을 시로 읊었다.

둘째, 연명의 시는 언어가 平易하고, 내용이 허공에 떠 있지 않으며 맑고 깨끗하면서도 간결하고 생동감이 있는 田園의 정취를 읊었다. 이것을 ‘冲淡’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冲淡’이란 언어의 平易를 뜻하는 말로 內容이 虛空에 떠 있거나 깊이가 없다는 것과는 달리 어떤 때는 오히려 더욱 豊富한 뜻을 內包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명의 시는 “百字로써 駢麗

35) “古今隱逸詩人之宗也”(鍾嶸 《詩品》) 재인용

를 對偶하고, 한 구절이라도 신기한 것을 높이 친다”³⁶⁾라는 形式과 技巧을 중시하던 당시의 文壇風潮와는 달리 그의 체험을 통한 농촌의 情景를 平易하고 자연스런 文彩로 읊었기에 우리는 그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愛情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연명은 진실하고 순수한 眞性情으로 농촌의 情景와 이웃간의 따뜻한 人情味도 읊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한다. 이것을 ‘眞純이란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가 읊은 ‘眞純은 內容上으로는 ‘智巧나 ‘大偽와는 아주 반대인 ‘淳과 ‘樸의 개념을 意味하고, 形態上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강요를 받지 않는 安靜狀態를 말한다.

넷째, 연명의 시는 文字의 妙美를 잘 援用하여 意趣가 깊고, 象徴과 比喩로써 內面世界를 追求하였다. 이것을 ‘高妙라는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高妙한 표현은 그의 哲理를 읊은 詩에서 볼 수 있다. 이에 陳師道가 연명 시에 대하여 “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속의 오묘한 경지를 그렸을 따름이다.”³⁷⁾라고 한 말은 연명 시의 高妙함을 代辯한 것이다.

이상으로 陶淵明 田園詩에 나타난 內容上 特色을 考察한 결과, 蘇東坡가 “연명의 시는 많지는 않지만 질박하면서도 기암하고, 야윈 듯 하면서도 기름져서 曹植·劉楨·鮑照·謝靈運·李白·杜甫 등의 詩人이 못 미칠 바다.”³⁸⁾라고 평한 것은 바로 도연명의 시에는 다른 시인이 미치지 못하는 ‘冲淡’·‘眞純’·‘高妙’와 같은 內面上의 特色이 있기 때문이다.

36) “儷采百字之偶, 爭價一句之奇.”(胡雲翼 著, 張基樞 譯, 《中國文學史》,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4, 180쪽.) 재인용

37) “淵明不爲詩, 寫其胸中之妙耳.”(陳師道, 《後山集》卷八, 《四部備要》本) 재인용

38)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 皆莫及也.”(蘇軾 <與蘇轍書>)

< 參考文獻 >

- 《十三經注疏》(臺北: 藝文印書館, 1976.)
荀子, 《荀子》(日本: 集英社), 昭和 57年.
莊周, 《莊子》(日本: 集英社), 昭和 57年.
陶潛 撰·陶澍 注, 《靖節先生集》(臺北: 華正書局), 1975.
鍾嶸 著, 曹旭集注, 《詩品》(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蘇軾, 《蘇軾詩集》(臺北: 學海出版社), 1983.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中華書局編輯部, 《陶淵明詩文集評》(臺北: 中華書局), 1974.
楊家駱 主編,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陶淵明詩文集評》(臺北: 世界書局), 1974.
宋丘龍, 《陶淵明詩說》(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黃仲崙, 《陶淵明評傳》(臺北: 帕米爾書店), 1971.
蕭望鄉, 《陶淵明批評》(臺北: 開明書局), 1977.
梁啟超, 《陶淵明》(臺北: 中華書局), 1972.
楊家駱 主編, 《陶淵明詩文集評》(臺北: 世界書局), 1974.
劉維崇, 《陶淵明評傳》(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方祖燊, 《陶潛詩箋註校證論評》(臺北: 蘭臺書局), 1977.
王貴苓, 《陶淵明乃其詩的研究》(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文學院 排印本), 1966.
大矢根文次郎, 《陶淵明研究》(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60.
吉川幸次郎 著, 李君奭 譯, 《陶潛》(臺北: 專心企業有限公司), 1976.
胡雲翼 著, 張基權 譯, 《中國文學史》(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4.
車柱環 譯, 《韓譯 陶淵明全集》(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張基權, 《新譯 陶淵明》(서울: 明文堂), 2002.
金學主, 《新譯 陶淵明》(서울: 明文堂), 2002.

운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2.

<中文提要>

關於陶淵明的文學成就，鍾嶸有如下評語：“古今隱逸詩人之宗”，即肯定了其田園詩鼻祖的地位，由此可知他對後代詩歌的影響有多深遠。

本文要考察的陶淵明田園詩的內容特色，可以歸納·整理為以下一點

第一，陶詩最重要的主題是對田園生活的憧憬。他在仕宦期間，反復吟詠和憧憬的是田園生活。正如想要脫鳥籠的飛鳥一樣，陶淵明也想從腐敗的社會和專制君主的殘暴中脫出來，與自然和田園為友。最後，他終於決定致仕歸田，親自進行農耕，并以清新自然為宗，創作了吟詠‘真性情’·‘真生命’的田園詩。

第二，陶詩的語言平易，內容樸實，風格簡潔，有生動感。因吟詠的是田園的情趣，整體風格給人以‘沖淡’的意境。

第三，陶詩不重修飾和雕琢，內容純粹而真實，是其‘真性情’的反映，使人感到鄉里間的融融真情，達到一種‘真純’的意境。陶吟詠的‘真純’體現在內容上的‘淳朴’和形式上的‘平易’。

第四，陶詩意境深遠·奧妙，吟詠了與天地自然渾然一體的精神世界，給人一種‘高妙’的意境。關於陶詩的特色，蘇東坡有如下精論述：“吾於詩人，無所甚好，獨好淵明之詩。淵明作詩不多，然其詩質而實綺，而實自曹·劉·鮑·謝·李·杜諸人，皆莫及也。”由此可推知陶詩在中國文學史上的地位。

주제어: 隱逸詩人之宗, 田園詩鼻祖, 清新自然, 語言平易, 沖淡, 純粹而真實
高妙